

철 든 마음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철에 사랑을 더하면 도시는 얼마나 맛있어질까요?
철에 사랑을 더하면 생활은 얼마나 행복해질까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철강기업 세아,
철에 대한 사랑으로 꼭 찬 사람들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갑니다.



세아홀딩스 세아제강 세아베스틸 세아특수강 한국번디 세아 ESAB 세아메탈 세아 M&S 세아네트웍스 세아로지스

SeAH

세 아 가 조

세 상 을 아 름 답 게 하 는 사 람 들

세 아 가 조 2013 11+12



11+12
NOV + DEC 2013

PROFESSIONAL

SeAH

CONTENTS

NOV + DEC 2013
VOL. 348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은

어느 분야에서든 장인으로서의

‘실력’을 인정받습니다.

갈고 닦아 빛나는 ‘실력’은

우리를 당당하게 만들 것입니다.

세아의 세 번째 핵심가치 ‘실력’

실력은 세아의 손과 발입니다.

〈세아가족〉 통권 348호 2013년 11+12호

발행일 2013년 12월 31일 발행인 김진규

발행처 세아홀딩스 기획·편집 세아홀딩스 02-6970-0093

디자인·제작 대통기획 02-2269-3613

표지촬영 Season2 Studio 02-538-9916

표지모델 세아 ESAB 품질개선팀 임희대 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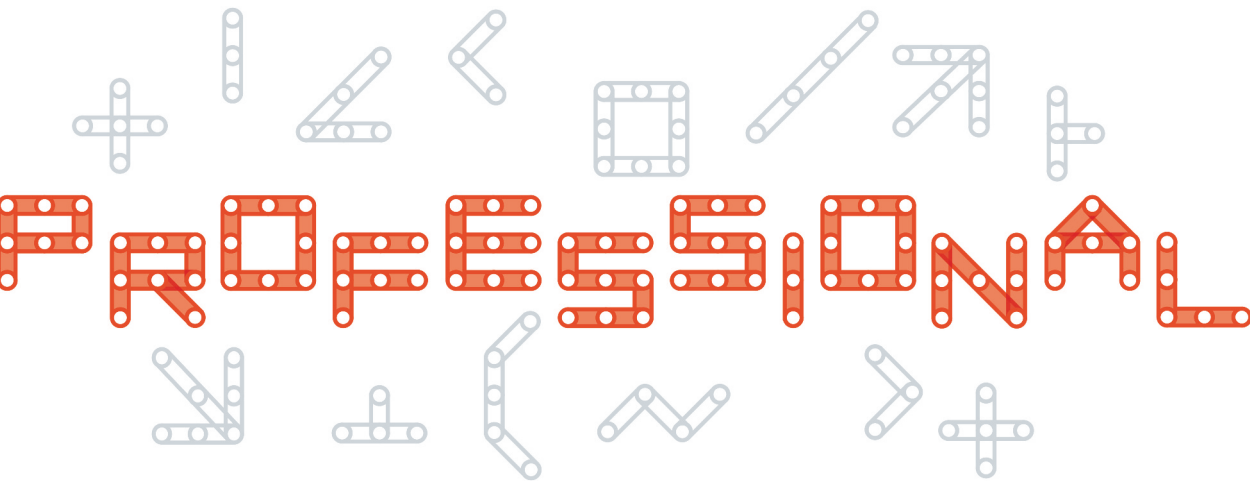
※외부 필자의 글은 〈세아가족〉의 편집방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세아가족〉
웹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SPECIAL SeAH

04	SPECIAL THEME	세아의 세 번째 핵심가치, 실력
06	REAL TALK	세아베스틸 윤기수 부사장과 세아 3인방 토크타임
10	OUR HARMONY	‘실력’이란 씨앗으로 무한 성장을 꿈꾸다!
14	THEME INTERVIEW	클래스는 영원하다, 바둑황제 조훈현 국수
18	THEME IN SeAH	세아의 숨은 실력, 정도경영(定道經營)
20	POWER OF SeAH	세아인의 실력, 세아가 키우다
22	THEME STORY	백발백중 대한민국 양궁의 비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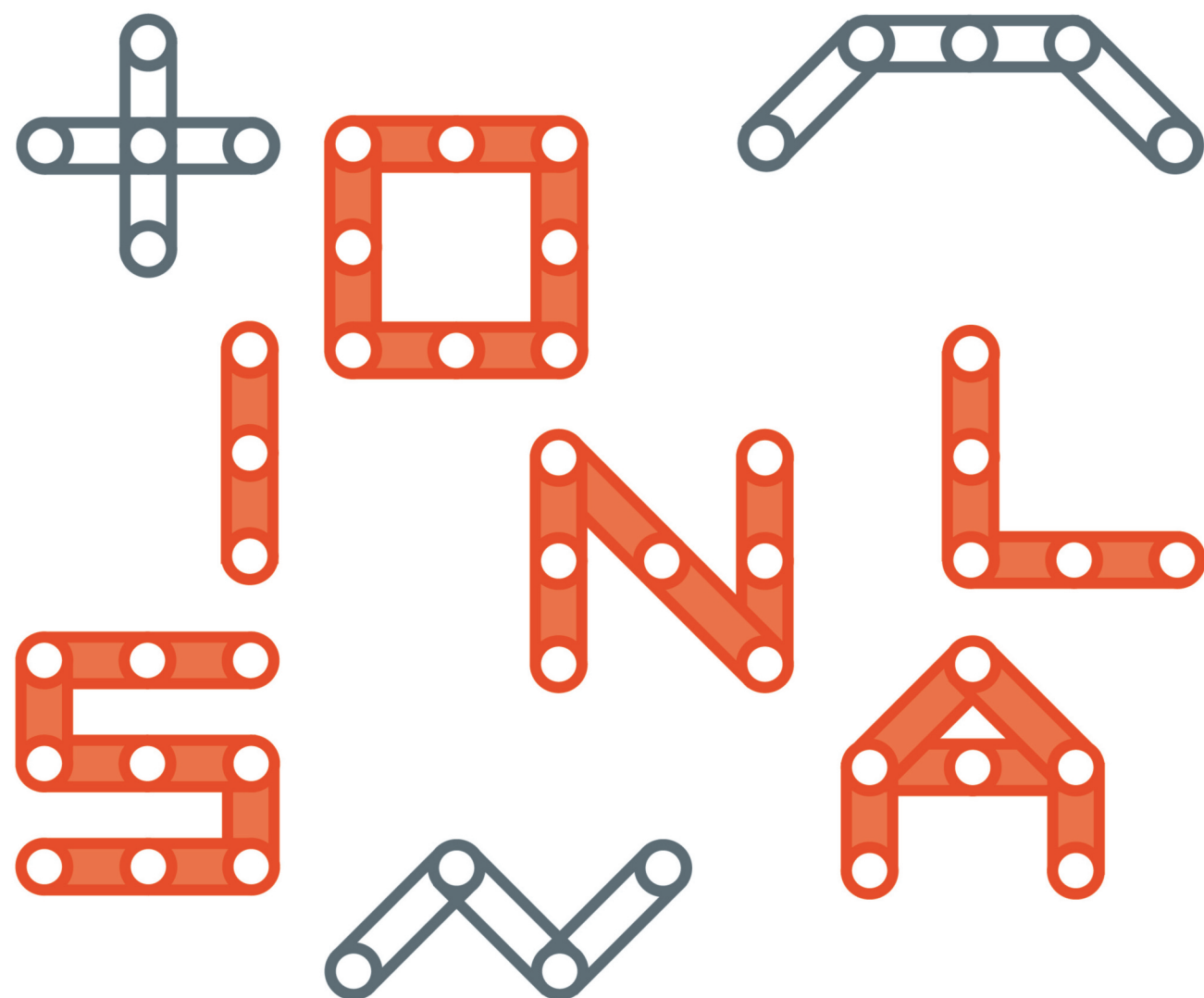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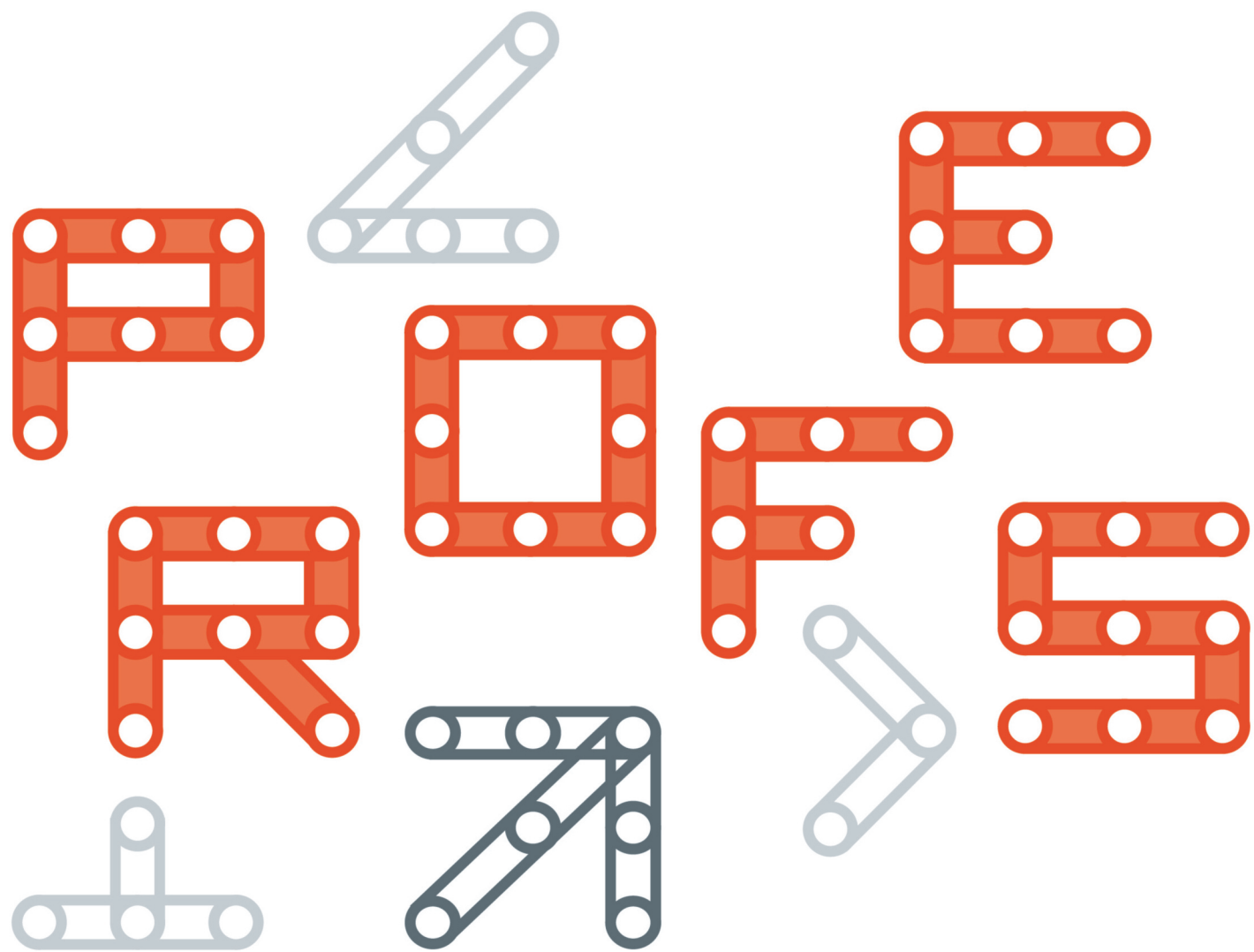


HIGHLIGHT SeAH

24	SeAH's HISTORY	국가 발전에 공헌할 인재를 육성하다,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설립
25	ZOOM IN	CI 오남용 사례 II
26	10HEADLINES	2013년 세아 10대 이슈
30	FOCUS	2013년 하반기 그룹공채 채용설명회
32	TEAM MISSION	열정의 매듭은 찬란히 빛난다, 세아제강 STS 내수팀
36	HOT ISSUE I	볼보코리아 벤치마킹 워크숍
38	HOT ISSUE II	세계무대 위, 소통의 강자로 우뚝 서다!

HIGH-FIVE SeAH

40	HIDDEN CHAMPION	한층 단단해진 실력으로 중무장한 ‘궁극의 행복’, 세아 ESAB 임희대 팀장
44	LOVE & COMPASSION	세아그룹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
46	SeAH NEWS	세아뉴스
49	SeAH PEOPLE NEWS	사우동정
50	EPILOGUE	에필로그
51	SECRET NOTE	실력을 쌓는 나만의 노하우



세아의 브랜드, _____ 실력實力

“프로의 세계는 냉정하다.”

승부를 내야하는 치열한 경기에서 운동선수들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오로지 성적으로 평가받는 선수에게 있어 실력은 자신의 브랜드이자
무기입니다.

세아는 투명한 정도경영(正道經營)을 바탕으로 철강소재의 혁신과 발전을
견인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철강소재 전문 기업으로 발전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우수하고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해 온 세아의 실력은
세계가 인정하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세아의 세 번째 핵심가치 실력은 세아를 지탱하는 손과 발입니다.

하나가 아닌 완성체로서!

실력, 본연의 모습을 찾다

세아베스틸 윤기수 부사장과 세아 3인방 토크타임



혼자서 갖고 뒀는 ‘한 자루의 칼’이 아니다. 세아인들이 공유하는 핵심가치 ‘실력’ 안에 는 통찰·협업·단결의 의미가 담겨 있다. ‘실력 있는 회사가 실력 있는 사원을 만든다’ 는 원칙 아래, 조직 안에서 인재발굴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세아베스틸 윤기 수 부사장. 그와 함께 핵심가치 세 번째 이야기 ‘실력’에 대한 유쾌한 담론이 시작됐다.

실력은 가치관과 시너지를 만든다!

최영민 사원 세아그룹의 손과 발인 핵심가치 ‘실력’이 스스로를 가꾸고 계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 력해야 하는 과제라는 것 외에 또 어떤 의미로 정의내릴 수 있을까요?

윤기수 부사장 실력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이나 재능이라 불리기도 하죠. 가령 스포츠 경기에서 패했을 때는 단순히 실력이 없었다고 말하지만 기업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능력과 재능 뿐만 아니라 많은 노력이 더해져야만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실력은 자신이 놓여있는 입장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됩니다. 사원은 1차 적으로 업무 지식을 습득하여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대리·과장급의 관리자에게는 인재를 육성하고 원활히 소통하는 능력이 있어야 실력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실력’의 뿌리는 ‘가치관’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재능을 쌓기 위한 노력이 뛰어나 다 하더라도 함께 이루고자 하는 목표나 가치관이 서로 상이하다면 정확한 핵심가치를 실현해 낼 수 없습니다. 최고의 성과는 구성원과 회사의 가치관이 한 방향을 향할 때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실력 있는 회사’

김광수 사원 리더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실력에는 ‘조직’이란 커다란 그림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실력 있는사람’을 만드는 ‘실력 있는 회사’란 어떤 모습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윤기수 부사장 우리 직원들이 부서 내에서는 1등을 하다가 다른 부서에 가서는 제 역량을 다 못 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실력자가 입사를 했다 해도 그 능력을 키워줄 좋은 관리자가 없다면 4~5년 후, 현격한 실력차를 보이게 됩니다. 최고의 자질과 가능성을 품고 있는 인재들을 성장시켜줄 수 있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각 부서를 이끄는 관리자들의 능력 또한 균형을 맞춰 신장돼야 합니다.

물론 조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직원들의 각기 다른 성향을 파악하여 리더형과 어시스트형 등 으로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팀 내의 불협화음도 줄일 수 있습니다. 조직의 하모니는 개개인의 실 력 및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리더 또한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하여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팀원 한 명 한 명이 서로를 인정하고 협업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66

무엇보다 ‘실력’은 ‘가치관’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재능을 쌓기 위한 노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함께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상이한 가치관을 가졌다면 정확한 핵심가치를 실현해낼 수 없습니다. 최고의 성과는 구성원과 회사의 가치관이 한 방향을 향할 때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99



66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부족한 것을 찾아 끊임없이 자기반성을 이어오면 본인의 강점을 파악하게 되고, 이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융합할 때 비로소 자신만의 컬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부족한 단점을 보완하는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는 방향성을 갖고 실력을 키워가야 합니다.

99

나를 잃지 않고, 개선해가는 방향성

홍정은 사원 그룹을 이루는 한 명의 구성원으로서도 실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아인으로 어떤 마인드를 갖고 실력 배양에 힘써야 하는지요.

윤기수 부사장 33년 전, 생산관리를 하며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시절을 떠올려 봤습니다. 힘은 들었지만 나와 관련된 업무에 가지치기를 해서 탐구하고 조사하여, 내 것으로 익혔을 때 남과는 차별화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가령, 구매담당이라면 구매 파트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고객과의 관계성도 고려

해보고, 신문 하나를 볼 때도 중동시장이 세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상을 해보는 방식이겠죠. 유기적으로 업무 관리를 해오는 동안 이미 스스로가 준비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부족한 것을 찾아 끊임 없이 자기반성을 이어오면 본인의 강점을 파악하게 되고, 이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융합할 때 비로소 자신만의 컬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부족한 단점을 보완하는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는 방향성을 갖고 실력을 키워가야 합니다.

2014년, 우리만의 문화를 이끌 리더가 되어

김광수 사원 부사장님께서도 리더로서 실력을 향상시켜가는 과정이 있으실 거라 여겨집니다. 멘토로 여기는 대상이나 그들을 통해 어떤 리더형으로 거듭나고 싶으신지요.

윤기수 부사장 제가 15년 간 몸담았던 세아특수강과 역사 속 인물인 이순신 장군을 함께 얘기하고 싶습니다.

10여 년 전에 비해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 온 세아 특수강은 선두회사들을 뛰어 넘기 위해 탄탄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직원들의 역량을 200%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그 결과 직원들의 실력이 향상되어 업계 최고의 위치에 오르게 되었고 진정한 Hidden Champion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순신 장군이 상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현재의 조건을 이용하여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해 내었던 모습이 진정한 실력가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

그 속에 도덕적인 윤리도 갖추고 있었기에 더할 나위없이 완벽한 인물인 듯 싶습니다. 저 역시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인 스킨십 경영을 기반으로 인재들이 마음껏 실력을 펼칠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만의 문화를 형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기반에는 물론 원활한 소통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ADIEU 2013

노력은 혁신의 시작점

1년의 시간을 잘 매듭지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후회와 아쉬움이 클수록 더욱 멋진 시작을 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앞으로 세계무대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세아인이 되기 위해 무엇보다 감사와 배려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서로에게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전직원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때 '실력'은 자동적으로 향상될 관계에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실력을 갖추고 있다 해도 건강하지 않다면 무용지물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이란 점 잊지 마시고,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노력은 반드시 꿈을 실현시킬 혁신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세아베스틸 윤기수 부사장



MINI INTERVIEW

핵심가치 '실력'에 대하여!



한국번디 경영관리팀 최영민 사원

앞으로 회사 생활의 지침이 될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실력을 어떻게 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완성할 때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조언이 마음에 남습니다. 롤모델을 세우되, 그 선정에 있어서도 올바른 가치관이 기본이 되어야 함을 느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나의 파트에서 중심을 잡고 스스로 가치관을 세운 후,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세아인이 되겠습니다.



세아베스틸 구매1팀 김광수 사원

아직 입사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오늘 자리가 세아인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살펴볼 수 있었던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실력이 출중한 멘토가 있더라도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스스로의 장점을 계발하라는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일명 스마일맨이라 불리는 저의 밝은 에너지를 활용하여 실력도 향상시킬 수 있는 2014년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세아홀딩스 재무관리파트 홍정은 사원

부사장님의 조언을 통해 실력이란 핵심가치를 더욱 명확히 정의해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실력을 갖춘 사람이 겸손할 수 있으며 이것이 곧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상대를 인정할 수 있는 열린 태도를 만들 것입니다. 협업을 통해 성과를 내는 것이 진정한 실력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열심히 흘린 땀만큼 정직하게 자라는 '실력'이란 나무를 가슴 속에 품고 사는 세아인들. 2013년을 되돌아보며 우리 안에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있는 한 그루의 건강한 나무를 들여다보자. 자신을 파악하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숨은 2%의 가능성을 찾고자 4인방이 나섰다.

'실력'이란 씨앗으로 무한 성장을 꿈꾸다!



실력이란 **문제 해결** 이다.

66

나의 맨파워를 업그레이드 시키다!

세아 L&S 판매기획팀 이지훈 대리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세아인들 모두 진정한 실력자가 아닐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역량을 발휘하고 있으니깐요. 실력에 대한 질문을 받고 문득 14년 전 미해병 부대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문화도 정서도 다른 그들 사이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부단히 애를 썼죠. 결국 어울리는데 거리낌이 전혀 없을 정도로 가까워졌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롭게 발령 받은 세아 L&S 판매기획팀에서도 그때와 같은 노력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환경과 업무에 빠르게 융합될 수 있도록 최고의 맨파워를 보여드리고자 다짐해봅니다.

99

■ 다중능력 약식 자가진단법 (독자 어려분도 참여해 보세요.)

이름 및 직급: 이지훈 / 대리 나이: 36
소속 계열사: 세아 L&S 팀·파트: 판매기획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2점 별로 그렇지 않다 | 3점 보통이다 | 4점 대체로 그렇다 | 5점 매우 그렇다

※ 한 문항을 오래 생각하지 마세요. 본인이 습관적으로 하는 것을 체크하면 됩니다.

	1점	2점	3점	4점	5점
1 박자와 전체 곡의 분위기에 맞게 악보의 빈마디를 채울 수 있다.	☐	☐	☒	☐	☐
2 연가나 춤으로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을 잘 표현한다.	☐	☐	☒	☐	☐
3 문제가 생기면 성급하게 결론짓기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원인을 밝히려려고 한다.	☐	☐	☒	☐	☐
4 고장 난 기계나 물건을 잘 고친다.	☐	☐	☒	☐	☐
5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의 핵심을 잘 파악한다.	☐	☐	☒	☐	☐
6 다른 사람들 앞에서 프리젠테이션이나 발표를 잘한다.	☐	☐	☒	☐	☐
7 앞으로 어떻게 성공해야 할지에 대해 목표와 믿음을 가지고 있다.	☐	☐	☒	☐	☐
8 인공적인 전사관보다는 신이나 강, 바다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	☐	☐	☒	☐	☐
9 처음 듣는 노래를 쉽게 따라 하는 편이다.	☐	☐	☒	☐	☐
10 축기나 운동, 신체 감각이 발달한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	☐	☐	☒	☐	☐
11 과학이나 의학에서 새롭게 개발된 것들에 대하여 관심이 많다.	☐	☐	☒	☐	☐
12 한 번 갔던 길을 잘 찾아 간다.	☐	☐	☒	☐	☐
13 내가 경험하고 느낀 것을 일기(글)로 남기는 편이다.	☐	☐	☒	☐	☐
14 사람들과 사귀는 것을 즐기고, 새로운 사람과도 쉽게 친해진다.	☐	☐	☒	☐	☐
15 명상이나 요가 등을 좋아한다.	☐	☐	☒	☐	☐
16 건강과 먹거리에 관심이 많다.	☐	☐	☒	☐	☐

주관식 1 나의 최대 약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주관식 2 나의 최대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항목	음악	신체·운동	논리·수학	공간·지각	언어	사고·공간	자기성찰	자연·친화
문항	1	2	3	4	5	6	7	8
점수	4	3	4	5	4	4	4	5
문항	9	10	11	12	13	14	15	16
점수	3	5	5	5	4	4	3	4
세로항목별 점수 합계	7	8	9	10	8	8	7	9

※ 합계가 높은 항목이 자신이 가진 강점능력입니다. (정확한 검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력이란 **실패 · 도전 · 노력** 이다.

66

자기 진단을 통한 '개선점' 찾기

세아홀딩스 법무팀 김정민 사원

어떤 일이든 처음부터 잘 해낼 수는 없습니다. 능력과는 별개로 익숙지 않은 상황에선 누구나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실패에 대해 똑같이 대처하진 않습니다. 실패한 것에 있어서 좌절하지 않고 다시 노력하려는 도전 정신이 있어야만 실력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연스레 쌓이게 되는 거죠.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찾아 노력하는 세아인들은 이미 실력자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의 실력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은 첫째, 업무 진행에 대한 경험을 쌓고 변하는 법률에 대해 숙지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둘째, 내부 소통시에는 문제 처리 태도에 유연함을 배워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잘 분석하고 진단할 때 부족한 부분도, 개선할 부분도 보이는 게 아닐까요.

99

■ 다중능력 약식 자가진단법 (독자 어려분도 참여해 보세요.)

이름 및 직급: 김정민 / 사원 나이: 31
소속 계열사: 세아홀딩스 팀·파트: 법무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2점 별로 그렇지 않다 | 3점 보통이다 | 4점 대체로 그렇다 | 5점 매우 그렇다

※ 한 문항을 오래 생각하지 마세요. 본인이 습관적으로 하는 것을 체크하면 됩니다.

	1점	2점	3점	4점	5점
1 음악을 들을 때 음정, 리듬, 박스, 분위기를 잘 파악한다.	☐	☐	☒	☐	☐
2 뜨개질이나 조립과 같이 섬세한 손놀림이 필요한 활동을 잘한다.	☐	☐	☒	☐	☐
3 물건의 가격이나 할인가, 저축 이자 등을 잘 계산한다.	☐	☐	☒	☐	☐
4 어떤 시절 그림 그리거나 만화기를 잘한다고 칭찬 받았다.	☐	☐	☒	☐	☐
5 책이나 신문을 읽을 때 그 내용을 잘 이해한다.	☐	☐	☒	☐	☐
6 가족이나 친구, 동료 등 사람들과 잘 지내는 편이다.	☐	☐	☒	☐	☐
7 내 일정을 수첩에 정리하는 등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한다.	☐	☐	☒	☐	☐
8 수목원 산책이나 등산을 좋아한다.	☐	☐	☒	☐	☐
9 어떤 악기라도 비교적 쉽게 배운다.	☐	☒	☐	☐	☐
10 연예인이나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잘 흉내낸다.	☐	☒	☐	☐	☐
11 암기할 때 무작정 외우기보다는 개념을 이해한 후 암기하는 편이다.	☐	☐	☒	☐	☐
12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때 그림이나 개념 지도를 그려 가며 이해한다.	☐	☐	☒	☐	☐
13 확장 시절 국어나 글쓰기를 좋아했다.	☐	☐	☒	☐	☐
14 내가 속한 집단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찾아서 수행한다.	☐	☐	☒	☐	☐
15 실패했을 때 그 원인을 분석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한다.	☐	☐	☒	☐	☐
16 동식물이나 특정 사물에 갖는 특징을 분석하는 것을 좋아한다.	☐	☐	☒	☐	☐

주관식 1 나의 최대 약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주관식 2 나의 최대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항목	음악	신체·운동	논리·수학	공간·지각	언어	사고·공간	자기성찰	자연·친화
문항	1	2	3	4	5	6	7	8
점수	3	3	3	3	5	5	5	4
문항	9	10	11	12	13	14	15	16
점수	2	2	5	5	4	4	4	4
세로항목별 점수 합계	5	5	8	8	9	9	9	8

※ 합계가 높은 항목이 자신이 가진 강점능력입니다. (정확한 검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66

실력 있는 금메달리스트를 향해!

세아특수강 봉강판매1팀 윤예지 사원

노력을 하다보면 그 대가가 쌓이고 쌓여 실력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곁에도 대표적인 노력파가 있는데요. 바로 봉강판매1팀의 조인제 대리님입니다. 사소한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 쓰시고, 세운 계획들은 미뤄지지 않도록 언제나 노력하는 모습이 진정한 실력자라고 느꼈습니다. 입사 후, 제가 잘 모르는 업무에 대해서도 친절히 설명해주셔서 배우고 따라야 할 멘토라 여겼습니다. 학창시절부터 뒤쳐지는 것들에 더 열성을 다해 좋은 결과를 얻어냈던 근성을 가지고 저도 최선을 다하는 2014년을 만들어 보고고요. 그렇게 '실력 있는 세아인'이 되기 위해서 제게 가장 필요한 것은 참을성을 기르는 것과 끈임함을 갖추는 것입니다. 앞으로 자료 작성과 같은 업무 처리 시 검토를 습관화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게 나와의 경쟁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99



실력이란 **노력의 대가** 이다.

다중능력 약식 자가진단법

(독자 여러분도 참여해 보세요.)

이름 및 직급: 윤예지 사원 나이: 21
소속 계열사: 세아특수강 팀·파트: 봉강판매1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별로 그렇지 않다 3점 보통이다 4점 대체로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

* 한 문항을 오래 생각하지 마세요. 본인이 습관적으로 하는 것을 체크하면 됩니다.

	1점	2점	3점	4점	5점
1 다른 사람의 연주나 노래를 들으면 어떤 점이 부족하지 않을 수 있다.	☐	☐	☒	☐	☐
2 어떤 운동이라도 한두 번 해보면 잘 할 수 있다.	☐	☐	☒	☐	☐
3 다른 사람의 말 속에서 비논리적인 점을 잘 찾아낸다.	☐	☐	☒	☐	☐
4 다른 사람의 그림을 보고 평가를 잘 할 수 있다.	☐	☐	☒	☐	☐
5 어떤 시절 작가나 아나운서를 꿈꿨던 적이 있다.	☐	☐	☐	☐	☒
6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정다감하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	☐	☒	☐	☐
7 내 생각이나 감정을 상황에 맞게 잘 통제하고 조절한다.	☐	☐	☒	☐	☐
8 동물이나 식물에 관하여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	☐	☐	☒	☐	☐
9 다른 사람과 노래할 때 화음을 잘 넣는다.	☐	☐	☒	☐	☐
10 운동을 잘한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	☒	☒	☐	☐
11 업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와 방법을 잘 알고 있다.	☐	☒	☐	☐	☐
12 내 방이나 실내를 꾸밀 때,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어떻게 배치해야 할 지 잘 알아낸다.	☐	☐	☐	☒	☐
13 글을 조리 있고 설득력 있게 쓴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	☐	☐	☒	☐
14 주변 사람들의 기분을 잘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처한다.	☐	☐	☐	☒	☐
15 평소 내 능력이나 재능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	☒	☐	☐
16 동물이나 식물을 좋아하고 잘 돌본다.	☐	☐	☐	☐	☒

주관식 1 나의 최대 약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참을성이 부족한 것이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관식 2 나의 최대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항목	음악	신체·운동	논리·수학	공간·지각	언어	사교·공감	자기성찰	자연·친화
문항	1	2	3	4	5	6	7	8
점수	3	4	3	3	5	3	4	3
문항	9	10	11	12	13	14	15	16
점수	3	3	2	5	4	5	4	5
세로항목별 점수 합계	6	7	5	8	9	8	8	8

* 합계가 높은 항목이 자신이 가진 강점능력입니다. (정확한 검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력이란 **서로를 Win-Win하게 만드는 힘** 이다.

66

끊임없이 역경을 이겨내는 '파이팅'

세아메탈 수출팀 김강현 사원

역경의 순간에 진정한 실력이 빛을 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나 혼자만'의 생존을 생각하기 보단 서로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상대를 생각하고 이끌어가는 힘이 '실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개인별로도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대학시절 조리 스템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인터넷으로 레시피를 찾아 공부하거나 다른 스템들에게 직접 요리를 만들어주던 사이, 반년 새 부쩍 실력이 늘어 있더군요. 누가 시키지는 않았지만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이 저의 요리 능력을 향상시켰어요. 최선은 더할 수 없이 정직한 '실력'을 만들죠. 앞으로는 더 넓고 커다란 시장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 팀원들은 물론 세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재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새로운 링 위에 올라 열심히 땀 준비를 해봅니다.

99

다중능력 약식 자가진단법

(독자 여러분도 참여해 보세요.)

이름 및 직급: 김강현 사원 나이: 31
소속 계열사: 세아메탈 팀·파트: 수출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별로 그렇지 않다 3점 보통이다 4점 대체로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

* 한 문항을 오래 생각하지 마세요. 본인이 습관적으로 하는 것을 체크하면 됩니다.

	1점	2점	3점	4점	5점
1 취미로 악기 연주나 음악 감상을 즐긴다.	☐	☐	☐	☒	☐
2 운동 경기를 보면서 선수들의 장단점을 잘 짚어낸다.	☐	☐	☐	☒	☐
3 어떤 일이든 실험하고 검증하는 것을 좋아한다.	☐	☐	☒	☐	☐
4 손으로 물건을 만들고,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	☐	☐	☒	☐	☐
5 다른 사람보다 어휘력이 풍부한 편이다.	☐	☒	☐	☐	☐
6 친구나 가족의 고민을 풀어 주거나 해결하는 것을 좋아한다.	☐	☐	☒	☐	☐
7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생활을 계획하는 것을 좋아한다.	☐	☐	☒	☐	☐
8 자동차에 관심이 많고, 차종별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고 있다.	☐	☒	☐	☐	☐
9 악보를 보면 그 곡의 멜로디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	☐	☒	☐	☐
10 평소엔 몸을 움직이며 활동하는 것을 좋아한다.	☐	☒	☒	☐	☐
11 학창 시절 수학이나 과학을 좋아했다.	☐	☒	☐	☐	☐
12 아침잠적이라도 길이나 날이를 비교적 잘 파악하는 편이다.	☐	☒	☒	☐	☐
13 글이나 문서를 읽을 때 문법적으로 아색한 문장을 잘 찾아낸다.	☐	☐	☒	☐	☐
14 왕따(집단따돌림)이 왜 발생하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알고 있다.	☐	☐	☒	☐	☐
15 나의 건강 상태나 기분,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	☒	☐	☒	☐
16 옷이나 가방을 보면 어떤 브랜드인지 바로 알아맞힐 수 있다.	☐	☒	☐	☐	☐

주관식 1 나의 최대 약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주관식 2 나의 최대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항목	음악	신체·운동	논리·수학	공간·지각	언어	사교·공감	자기성찰	자연·친화
문항	1	2	3	4	5	6	7	8
점수	4	4	3	4	2	3	4	2
문항	9	10	11	12	13	14	15	16
점수	3	4	2	3	4	3	4	2
세로항목별 점수 합계	7	8	5	7	6	6	8	4

* 합계가 높은 항목이 자신이 가진 강점능력입니다. (정확한 검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曹
薰
鎔

Cho's Legacy

클래스는 영원하다, 바둑황제 조훈현 국수

조훈현 국수는 대한민국 최초 9단 등극, 타이틀전 최다 연패, 세계 최초 개인 통상 1900승을 달성하며 바둑계의 살아있는 역사로 칭송받는 인물이다. '영원한 황제', '귀신이 돕는 승부사', '전신(戰神)'으로 불리는 조훈현 국수와 만나 바둑과 인생, 그리고 실력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국수(國手) 조훈현

두 사람이 마주앉아 돌을 쥐고 판 위에 놓는다. 돌은 판에 그려진 가로줄과 세로줄의 교차점에 놓을 수 있다. 한번 놓인 돌은 움직이거나 들어낼 수 없다.

바둑은 흑과 백의 돌을 사각 판 위에 번갈아 놓으며 ‘집’을 차지하는 놀이다. 목표는 상대보다 더 많은 공간을 자신의 돌로 둘러싸는 것. 규칙은 단순하지만 결코 쉽지 않는 게임이다. 최근 인기리에 연재 중인 웹툰 ‘미생(未生)’이나 ‘신의 한수(手)’와 같

한 화력의 ‘전신(戰神)’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가장 많이 불리는 호칭은 역시 ‘국수(國手)’다. 국수란 국수전 타이틀을 가졌던 사람을 일컫는 말이지만 한 나라에서 바둑을 가장 잘 두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미 젊은 후배들에게 최강자의 자리를 내어놨지만 바둑계에서는 여전히 그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담아 조 국수라고 부른다.

인생의 스승, 세고에 겐사쿠 9단

“공부벌레처럼 바둑을 배운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야단 안 맞으려고 했던 거지, 땀땀이도 많이 쳤고(웃음). 좋은 스승을 만난 인복(人福) 덕이 아닌가 합니다.”

아홉 살의 나이에 세계 최연소로 입단한 조훈현 국수는 이듬해 일본 바둑계의 최고 원로인 세고에 겐사쿠(瀬越憲作 1889~1972) 9단 아래로 들어간다. 그때까지 세고에 9단은 제자를 단 두 명밖에 두지 않았는데, 한 명은 일본 관서기원 창립자인 하시모토 우타로(橋本宇太郎) 9단이었고 또 한 명은 ‘기성’의 칭호를 받은 중국인 우칭위엔(鳴濤源) 9단이었다. 74세에 손자뻘인 조훈현 국수와 처음 만난 세고에 9단은 “이 아이는 내가 죽는 날까지 데리고 있겠네”라며 강한 애정을 보였다고 한다. 세고에 9단은 인생의 마지막 제자로 조훈현을 선택했으나, 조 국수가 스승에게서 직접 지도받은 바둑은 열 판도 되지 않는다. 기술보다는 더 높은 바둑의 경지를 깨칠 수 있도록 배려한 스승의 사랑이었다. “선생님은 대단한 경지에 오른 분이셨지요. 늘 인간의 도(道)와 품위를 강조하셨습니다. 제가 지금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모두 선생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당시엔 몰랐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내가 바둑을 통해 인생의 길을 걷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우리 선생님을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죠(웃음).”

전신(戰神)으로 거듭나다

1989년 싱가포르에서 세계 바둑계를 뒤흔든 일이 발생한다. 제1회 응창기배 결승전에서 조훈현 국수와 2대2로 팽팽히 맞서던 중국의 ‘철의 수문장’ 네웨이핑(聶衛平) 9단이 평정심을 잃고 말았던 것. 조 국수의 통쾌한 역전승은 변방에 머무르던 한국 바둑의 위상을 세계 중심으로 끌어올린 계기가 되었다. 응창기배 우승으로 조훈현 국수는 은관 문화훈장을 수훈했으며, 김포공항에서 광화문까지 국가 주도 카퍼레이드를 한 20세기 최후의 인물이 되었다.

그러나 이후 조 국수는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 이창훈 9단에게 타이틀을 차려로 넘기는 등 ‘무관의 제왕’으로 불리던 시기도 있었으나, 바둑 스타일을 바꾸며 부활에 화려하게 성공한다. 이전까지 빠르고 가벼운 행보로 ‘제비’라 불리던 그는 상대의 혼을 빼놓는 강한 싸움을 내세우는 스타일로 진화, ‘전신(戰神)’으로 거듭난 것이다. 2002년에는 50세라는 나이에 세계대회인 삼성화재배 우승을 거머쥐었는가 하면, 올해 9월에는 세계 최초 1900승 달성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며 ‘전쟁의 신’임을 증명했다.



영원한 현역, 영원한 승부사

한국 바둑계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인물이자 51년의 프로 활동 대부분을 최정상의 자리에서 보낸 조훈현 국수. 그는 ‘실력’이란 ‘간절함과 노력’에 달렸다고 강조한다.

“제가 오랫동안 후배들을 보면서 느낀 점은 실력 있는 사람은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바둑기사 뿐만

아니라 직장인 역시 대단한 프로라고 생각합니다. 프로는 실력으로 말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치열하게 노력해서 자신의 일에서 고수(高手)가 되길 바랍니다.”

반상 위에서 군림하던 청년은 어느 새 백발의 노신사가 되어 “요즘은 1승이 아쉽다(웃음)”며 농을 던진다. 올해 환갑을 맞은 조훈현 국수. 앞으로도 건강한 모습으로 ‘노장은 건재하다’는 것을, ‘클래스는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

바둑기사 뿐만 아니라 직장인 역시 대단한 프로라고 생각합니다.

프로는 실력으로 말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치열하게 노력해서 자신의 일에서 고수(高手)가 되길 바랍니다.



**한국 특수강산업을 선도해 온 기아특수강**

1937년 설립된 기아특수강은 반세기가 넘는 오랜 세월 동안 국내 기계공업의 선도 업체로서 위치를 다졌으며, **1982년 주력 사업을 특수강으로 전환한 후에는 고품질의 소재로 국가 기간산업 발전에 기여한 특수강 대표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기아특수강 군산공장은 원료 투입에서 생산, 출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기아특수강은 공급 과잉과 대규모 투자비용 부담을 극복하지 못하고 IMF 외환위기를 맞으며 법정관리라는 무거운 굴레를 쓰게 되었다.

故 이운형 회장의 강력한 인수 의지

특수강은 자동차, 기계, 조선, 방위산업, 항공 우주산업, 발전, 플랜트 등 각종 산업 분야에 필수적인 소재를 공급하는 국가 기간사업이자 ‘철강산업의 꽃’이라 불린다. 특히 특수강은 타 산업과 전후방 연관 효과가 대단히 높아 관련

산업의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조선, 기계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최종 제품의 품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고품질 특수강 소재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도전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故 이운형** 회장은 “적극적이고 과감한 투자로 사업을 다각화할 것”이라는 의지를 전달하며 기아특수강 인수를 진두 지휘했다.

세아 대(對) 골드만삭스의 치열한 대결

기아특수강 인수전은 세아제강과 세아홀딩스가 주축이 된 세아 컨소시엄과 골드만삭스 컨소시엄의 대결로 압축되었다. 세아 대(對) 골드만삭스의 대결은 한미 양국의 대리전 성격을 띠는 점에서도 국내외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골드만삭스의 전략적 파트너가 북미 최대의 철강기업인 ISG(International Steel Group)로 밝혀지면서 인수전은 더욱 치열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2003년 5월 골드만삭스가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골드만삭스와 관할 법원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세아가 강력한 후보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서울지방법원은 국내 기업인수 합병 관례를 따르지 않는 골드만삭스의 무리한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세아 컨소시엄을 새 인수 후보자로 결정할 것을 전해왔다. 이로써 세아는 대반전에 성공하며 7월 14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인수작업에 돌입했다. 이후 다양한 현안들을 해결하며 2003년 11월 10일 기아특수강 인수작업이 마무리되었다.

세아베스틸로 새롭게 탄생하다

2003년 12월 11일 세아그룹의 일원이 된 기아특수강은 이승휘 부회장이 수장으로 취임하며 사원과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첫 걸음을 뒀다. 이듬해 3월 12일에는 ‘Best’와 ‘Steel’의

합성어로서 ‘최고의 철강회사’를 향한 비전과 ‘최고의 소재로 부가가치 창출’의 경영철학을 담은 ‘세아베스틸’로 사명을 변경했다. 바뀐 것은 사명만이 아니었다. 적자였던 실적이 불과 1년 만에 흑자로 돌아선 것. 여기에는 세아의 정도경영(定道經營), 즉 올바른 원칙과 방법을 준수한 방식이 가장 큰 힘을 발휘했다. 세아는 인수와 동시에 판매 체계부터 불필요한 낭비까지 기존 방식을 모두 고치며 ‘원칙을 중시’하는 세아의 기업문화가 스며들도록 했다. 또한 오랜 법정관리를 거치면서 약화된 구성원 간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한마음 체육대회, 소그룹 발표대회, 계층별 간담회, 경영진과의 오찬, 각종 공모전을 실시하여 신바람나는 직장문화 조성에도 앞장섰다. 세아베스틸은 전 직원의 깊은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과감한 투자와 혁신, 생산성 증대 노력에 힘입어

출범 첫 해인 2004년 550억 원의 경상이익을 실현, 2005년에는 그룹 내 단일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매출 1조 원 시대의 막을 열었다. 세아의 기아특수강 인수는 성공적인 M&A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단시간에 기업의 체질 변화와 양적 성장을 이루고 경영진과 구성원 간 깊은 신뢰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세아의 정도경영(定道經營)이 있었기 때문이다. 올바른 원칙과 방법을 준수하는 정도경영, 세아가 보유한 진짜 ‘실력’이다.

The Easy Way is not Always the Right Way

세아의 숨은 실력, 정도경영(定道經營)

세아의 기아특수강 인수는 2003년 철강업계 10대 사건 중 높은 순위에 랭크되었을 만큼 큰 화제를 모았다. 기아특수강은 세아그룹에 편입되어 세아베스틸로 사명을 변경한 후 불과 2년 만에 매출 1조 원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1997년 부도 이후 법정관리 상태에 놓였던 기아특수강이 빠르게 정상화 된 배경에는 세아의 실력 ‘정도경영(定道經營)’이 숨어있었다.

01



01 세아그룹으로
편입한 세아베스틸
지면광고(2003.12)
02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02





POWER OF SeAH

Becoming More Professional in SeAH

세아인의
실력,
세아가 키우다

세아는 '실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아인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어, 체력, 직무능력, 문화적 소양을 골고루 갖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중이다.

외국어

글로벌 감각을 익히다

세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등 다양한 어학강좌를 진행, 임직원의 외국어 실력 향상을 돕고 있다. 우수한 사원에게는 어학연수, 해외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국제적 감각을 겸비한 인재 육성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고 있다.



직무 능력

핵심가치와 핵심역량 강화

세아는 모든 계층별 교육에 '변화관리, 창의성, 도전정신, 전문성, 융화'의 다섯 가지 핵심역량을 반영하여, '정직, 열정, 실력'으로 대표되는 세아의 핵심가치와 핵심역량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다. 또한 'SPEC', '챌린지 리더'와 같은 직무별 교육 및 전문자격제도를 운영하여 내부역량을 강화시키고, 독서교육 및 이러닝을 진행하며 평생교육을 독려하고 있다.



문화적 소양

오페라 강의 및 문화행사 참여

세아는 문화적 소양을 갖춘 품격 있는 인재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2000년부터 국립오페라단을 후원해온 세아는 매 공연마다 티켓을 구매하여 직원들이 오페라를 가깝게 느낄 수 있게 했다. 또한 사내 오페라 강의 '렛츠고 오페라' 및 각종 문화 행사 지원을 통해 임직원이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도록 돕고 있다.



건강증진

체력도 실력이다

모든 기본은 건강이다. 직원들은 전문 트레이너가 지도하는 휘트니스 센터에서 건강을 관리하고 있으며, 신입사원들은 산악행군에 참가하여 강한 체력과 정신력을 키운다. 각 계열사는 체육대회, 등산, 금연 캠페인 등을 진행하여 직원들의 건강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100 Out of 100

백발백중 대한민국 양궁의 비밀

대한민국 양궁이 종주국 영국을 누르고 무려 30년 간 세계 정상을 지키고 있다.

우리나라 양궁은 훈련 프로그램, 사법(射法), 활까지도 역수출하고 있다.

1984년 LA올림픽에서 첫 금메달을 획득한 후 각종 대회에서 메달 행진을 벌이고 있는

대한민국 양궁 대표팀. 완벽한 실력 뒤에 숨겨진 비밀을 알아본다.



세계 최강, 대한민국 양궁

한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양궁 강국이다. 한국이 올림픽에서 수확한 81개의 금메달 중 양궁에서만 19개가 나왔다. 한국이 보유한 올림픽 금메달 가운데 양궁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4%에 달한다. 한국 양궁은 1984년 LA올림픽을 시작으로 2012년 런던올림픽까지 총 34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특히 여자 단체팀은 1988년 서울올림픽부터 2012년 런던올림픽까지 단 한 차례도 금메달을 놓치지 않으며 7패 달성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우리나라 대표팀이 메달을 휩쓸자 세계 양궁계는 한국의 독식을 막기 위해 수시로 경기방식을 바꾸었다. 각종 견제와 압박 속에서도 최정상의 자리를 내놓지 않는 대한민국 양궁 대표팀. 그 비결은 무엇일까?

소음을 이기고 경기에 집중하라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이 활을 쏘려고 하자 관중들이 호루라기를 분 사건이 있었다. 슈팅 순간 날카로운 소음으로 집중력을 잃게 하려는 꼼수였으나 우리 선수들은 방해 작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중국 관중이 자국 선수들의 승리를 위해 소음을 낼 것을 예상하여 집중적인 소음 적응 훈련을 거친 덕분이었다.

양궁 대표팀은 2012년 런던올림픽을 한 달 앞두고 강원도 제1군수지원사령부를 방문해 700여 명의 군인이 보내는 응원과 아우성 속에서 훈련을 받았다. 또한 실제 야구 시합이 진행 중인 마운드에서도 경기를 벌였으며, 경륜 경기 중간에도 연습을 했다. 떠들썩한 소음, 소란스러운 분위기, 왜 여기서 활을 쏘느냐는 야유가 어지럽게 쏟아지는 장소에서 활에 집중하는 훈련을 했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화살을 쏠 수 있었다.

66

양궁 대표팀 훈련에 빠지지 않는 코스가 있다. 바로 극기 훈련이다. 그 밖에도 국내에서 접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특수 군사 훈련을 체험한다. 고공 훈련, 수중폭파대 훈련, 실미도 해병대 훈련 등 종류도 다양하다. 극한의 훈련을 통해 경기장에 섰을 때의 긴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도록 정신을 단련시킨다.

99



내면의 공포를 이겨라

양궁은 1mm에서 승부가 나뉘며 사소한 변수에도 승패가 좌우된다. 또한 내면의 공포와 싸우고 실수를 최소화하는 담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활을 쏘기 직전 심장이 터질듯 한 공포를 이겨내고 담담한 마음으로 활시위를 당기기 위해 양궁 대표팀은 인간이 최대의 공포를 느낀다는 11m 높이에서 다이빙 훈련을 한다. 하루 종일 다이빙대에 오르고 떨어지며 자신과 싸우는 것이다. 정기적으로 번지점프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는 번지점프대에서 자진해서 뛰어내린 순서대로 메달이 나왔다는 후문도 있다.

‘정신력’이 최강 실력의 비밀

양궁 대표팀 훈련에 빠지지 않는 코스가 있다. 바로 극기 훈련이다. 최전방에서 철책근무를 서는가 하면 뱀을 목에 두르고 활시위를 당기기도 한다. 그 밖에도 국내에서 접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특수 군사 훈련을 체험한다. 고공 훈련, 수중폭파대 훈련, 실미도 해병대 훈련 등 종류도 다양하다. 극한의 훈련을 통해 경기장에 섰을 때의 긴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도록 정신을 단련시킨다.

대표팀은 왜 이렇게 혹독한 훈련을 받을까? 선수들 대부분은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까지 약 10년 간 현역으로 활동한다. 올림픽 출전 기회는 단 두 번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은 인생을 걸고 승부에 임한다. 우리 민족은 활을 잘 쏜다 하여 ‘동이족(東夷族)’이라 불렸다. 하지만 한국 양궁의 성공이 타고난 기질 덕분일까? 대표팀 총감독을 역임한 서거원 전무는 “절대 그렇지 않다.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훈련 덕분이다”라고 말했다. 뼈를 깎는 노력과 극한의 훈련, 그리고 강한 정신력. 이것이 바로 세계를 제패한 대한민국 양궁의 비밀이다.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설립 국가 발전에 공헌할 인재를 육성하다



해암 이종덕 창업 회장의 철학

故 해암 이종덕 창업 회장은 회사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와 터전을 제공해 준 사회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업이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 일환으로 1992년 명예회장에 추대된 후 기업경영에서 얻은 이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정신을 구체화하여 그해 12월 31일 재단법인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을 설립하였다. 해암 이종덕 창업 회장의 사재로 출연한 3억 원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공식 발족한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은 해암이 초대 이사장에 취임하여 본격적인 공익활동을 시작하였다.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의 설립 목적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은 설립 목적에서 “사회 일반의 공익에 기여하고 국가와 민족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의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급사업과 교육학술 분야에 종사하는 인사와 단체의 연구 활동을 격려, 지원함으로써 민족문화의 향상과 국가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장학금 지급사업, 학술연구비 지급사업, 교육기관 지원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실행했다. 첫 사업으로 1993년 9월 10일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학업이 우수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30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다양한 후원 활동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에서는 장학금 지급사업 외에도 우수한 조선동포들을 한국에 유학시켜 인재로 양성하는 일에도 앞장섰으며, 1994년에는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에 기금을 헌정하였다. 서강대는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재단 측에 감사패를 전달하였고 강의실 이름을 '부산파이프의 방'으로 명명하였다.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은 발족 이후 공익활동 확대를 위한 기금을 확충하여 1993년 3차에 걸쳐 기본재산을 키운 데 이어 1994년에는 4차에 걸쳐 계열사의 기금 출연을 받아 기본재산을 총 17억 원으로 증액하였다.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은 2013년 현재 제21기 장학생을 선발했으며,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01 제1회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장학금 수여식
(1993. 9. 10)

02 장학생을 격려하는 해암 이종덕 창업 회장

03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 부산파이프의 방 개소식
(1994. 2. 28)

SēAH

세아가족은 2013년 1+2월 호부터 새롭게 교체된 C의 각 요소 별 의미와 특징을 살펴 보았다. 지난호에 이어 오남용 사례를 짚어봄으로써 올바른 C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C 오남용 사례 II (INCORRECT USAGE)

C 사용 시 주의사항

세아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C는 절대 변형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아래 베이직 시스템에 규정된 형태를 준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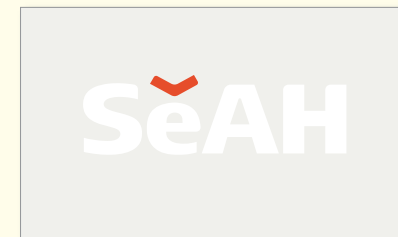
하단에 표시된 사례 외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임의로 변형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이미지 왜곡을 초래하거나 손상시킬 수 있는 모든 상황은 배제해야 한다.

C 오남용 사례 II

특수한 배경에 활용하여 왜곡되어 보이는 경우



배경과 충분한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배경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임의의 도형과 결합하여 사용한 경우



최소 공간 규정을 위반한 경우



배경의 구분에 특수효과를 사용한 경우



설렘과 기대를 안고 맞이했던 계사년(癸巳年)도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다.

편집실은 송년 특집으로 '2013년 세아 10대 이슈'를 준비했다.

다양한 이슈를 살펴보며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2014년을 맞이했으면 한다.

Issue

2013 Year in Review

2013년 세아 10대 이슈

Issue

세상을 아름답게 한 별이 지다

– 이운형 회장 영면

3월 10일 이운형 회장이 영면했다. 향년 67세, 故 이운형 회장은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정도 경영(正道經營)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사라져 간 지난 반세기 동안 탄탄한 세아를 일궈냈다. 또한 산업사의 중요한 변화 시기마다 모범 답안을 제시하여 대한민국 산업화의 초석을 다졌으며, 오랜 시간 국립오페라단을 비롯한 크고 작은 단체를 후원하여 우리가 사는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었다.

이운형 회장의 장례는 세아제강 회사장으로 5일 간 진행됐다. 빈소가 마련된 삼성서울병원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 분향소가 설치됐으며, 정·재계 인사 및 시민 2만 5,000여 명이 방문해 추모의 열기를 더했다. 3월 16일 정동제일교회에서 영결식이 엄수된 후, 유골은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선영에 안장됐다.



Issue

'100년 기업'을 향한 출발

– 세아타워 오픈

7월 22일 세아타워 오픈을 축하하는 기념식이 열렸다. 세아는 2012년 12월 통합사옥 세아타워에 입주한 후, 지난 반세기를 정리하고 100년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세아관을 포함한 다양한 부대시설을 아우르는 복합 커뮤니티 공간을 계획했다. 세아타워 오픈 기념식에서는 약 8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새롭게 문을 연 '세아 커뮤니티 허브'가 공개됐다. 참석자들은 세아타워 오픈을 축하하며 "구성원들이 자부심과 에너지를 얻어가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Issue

미래를 위한 날갯짓

– CBS 본격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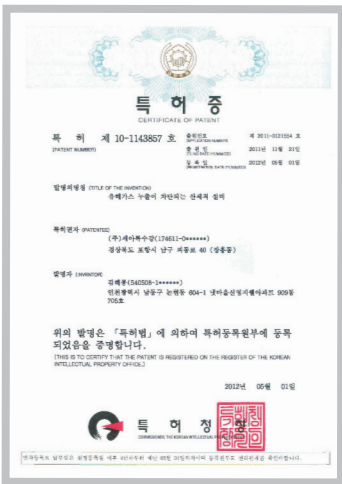
세아는 산업재 시장에서 신속한 고객대응과 효율적인 제조 방식으로 성장을 이룬 Colfax社의 경영 시스템 'CBS(Colfax Business System)'를 도입했다. 세아 ESAB은 2012년 하반기에 시범 적용 후 2013년 상반기부터 전사적으로 CBS를 실시 중이다. 세아는 올해 하반기 세아특수강, 한국번디, 해덱스틸(현 세아 L&S)에 CBS를 도입한 후, 2015년 전 계열사에 전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아홀딩스 양홍남 경영고문(CBS TF장)은 "CBS는 세아를 지속적으로 성장케 할 경영방식이자, 새로운 기업문화를 창출할 검증된 경영 톨"이라며 "CBS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4 Issue **다변화로 시장에 맞서다** - 세아베스틸 창냉공장 준공 및 생산 시작

2012년 착공을 시작으로 올해 5월 설비 테스트를 시작한 창냉공장이 10월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 세아베스틸은 2011년부터 여러 지역을 검토하여 2012년 경남 창녕군으로 최종 입지를 결정, 부지 6만 평에 연간 생산능력 54만 톤 규모의 제2공장 건설을 시작했다. 창냉공장 가동으로 세아베스틸의 특수강 생산능력은 연간 265만 톤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산업기계, 건설중장비 등 판매처 비중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 Issue **자체 기술력을 인정받다** - 세아특수강 신규 특허 취득

세아특수강이 자체 기술력으로 신규 특허 2건 취득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특허를 취득한 'CD BAR 방청 장치 및 방청 방법'은 방청 공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유해가스 누출이 차단되는 산세척 설비'는 작업환경을 개선시키고 각종 환경 규제에 사전 대응하는 계기가 됐다. 세아특수강은 신규 특허 기술을 각 계열사 및 중국공장에도 공유할 예정이다.



5 Issue **새로운 20년을 준비하다** - Vinapipe 창립 20주년 기념식

세아제강과 베트남 국영철강회사 VNsteel이 지분을 투자한 유한합작회사 Vinapipe가 10월 1일 창립 20주년 및 사업 연장 기념식을 개최했다. Vinapipe는 1992년 한국과 베트남의 문호 개방 이후 양국이 맺은 최초의 합작법인이자, 한-베 경제협력의 첫 단추를 꿰 상징적인 회사이다. 특히 두 모회사는 올해 4월 베트남 하이퐁시(市)로부터 사업을 2033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20년 비즈니스 라이선스 연장 허가'를 받았다. 우정과 신뢰를 인정받은 Vinapipe는 다양한 투자를 진행하여 베트남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7 Issue **탄소 제로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다** - 세아네트웍스 태양광 발전 시스템 가동

세아네트웍스가 태양광 에너지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했다. 올해 2월 세아제강과 세아베스틸 지붕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소의 본격적인 가동으로 연간 8,402MW의 전력 생산이 가능해진 것. 생산된 전력은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며 판매수익은 연간 약 32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아네트웍스는 공장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소를 준공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9 Issue **통합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다** - 세아로지스(현 세아 L&S) 3PL 시장 진입

세아로지스가 3PL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됐다. 세아로지스는 2013년 5월 KeP의 통합 물류 서비스 대행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전국 6개소에 위치한 KeP 창고의 위탁 운영과 배송을 대행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3PL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세아로지스는 새롭게 정비된 통합 물류 시스템을 바탕으로 신시장 개척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8 Issue **상생의 노사문화를 실천하다** - 세아 ESAB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세아 ESAB이 7월 23일 '2013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대기업 부문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번 시상식은 우수한 노사문화 확산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시상하는 제도이다. 세아 ESAB은 노사 간 대화채널 구축, 근로복지제도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노사발전을 이끈 점과 '28년 무분규 사업장'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2013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10 Issue **따뜻한 사랑을 전하다** - 계열사의 나눔 실천

올해도 세아의 나눔 활동은 계속됐다. 각 계열사는 사랑의 쌀 나누기, 배식봉사, 헌혈, 요양시설 방문, 장학금 모금, 희망물품 전달 등을 통해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세아는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지역사회와 상생을 강화할 예정이다.

OUR PASSION SHINES

열정의 매듭은

찬란히 빛난다!

세아제강 STS 내수팀

소리없이 내린 눈으로 온 세상이
하얗게 덮인 날. 녹슬지 않는
스테인리스처럼 강인함을 자랑하는
STS 내수팀이 크리스마스 분위기
물씬 풍기는 소품 앞에 모였다.
작고 예쁜 소품으로 트리에 멋을
내는 동안 열정으로 함께했던 지난
일 년의 추억들이 떠올라서 이들의
마음에도 반짝반짝 아름다운 불이
켜졌다.



미션! 크리스마스트리를 완성하라!

로맨틱한 기분에 빠져보고 싶다면
크리스마스처럼 잘 어울리는 날이 또
있을까. 감미로운 캐럴, 아기자기한 소품,
온 세상을 덮은 소복한 함박눈까지. 이
정도의 삼박자가 갖춰진 크리스마스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의 씨앗 하나쯤
가슴에서 움틀지도 모를 일이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매년 맞이하는 날임에도
변하지 않는 설렘이 있어 좋은 날.
“트리를 만드는 거예요? 와~ 재밌겠네요!”
트리에 매달 소품 하나씩 손에 들고
함박웃음을 터뜨리는 세아제강 STS
내수팀 류양식 팀장과 정정현, 장순율,
이재원, 마지영, 노경순 사원. 이들의
표정에서 겨울눈을 닮은 설렘이 묻어났다.
오늘 주어진 미션은 크리스마스트리
만들기. 트리를 멋지게 완성하면 머그컵과
다과 시간의 소소한 즐거움이 주어진다.
“크리스마스를 다른 사람보다 먼저
느껴보는 것 같아서 즐겁네요.”
류양식 팀장의 말에 모두 수긍하는 듯

고개가 끄덕여진다. 무슨 일이든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STS 내수팀. 밝고
유쾌한 분위기를 자랑하는 팀인만큼
즐거운 대화가 끊이지 않는다. 팀의
마스코트 마지영 사원과 목소리만으로도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노경순 사원이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여기예다 붉은 종을 달아요.”
“소품을 조금 더 높이 다니까 한결 예뻐
보이는 데요?”
붉은색, 하얀색 종을 매달고 별 모양
소품까지 다니 공간이 어느새 따뜻해진
기분이다.

젊음과 패기로 뚝뚝 뭉친 최연소 팀

STS 내수팀은 대리점과 건설사에
STS강관을 판매하는 팀으로 올해 1월 첫
발을 내딛었다. 많은 사람들이 STS
내수팀의 신선한 움직임에 기대했을
것이다. ‘신선하다’는 말에는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을 터. 새롭고 산뜻하다는
사전적 의미 외에도 현재보다 더 나은



있었다. 여섯 사람의 정성이 트리 곳곳에 매달렸으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뿌듯한 마음이다. STS 내수팀은 업무에서도 각자 일을 나눠서 하기보다 다함께 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함께하는 일은 서로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기회가 된다.

“오늘 팀원들 모두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습니다. 기회가 있다면 팀원들과 가까운 곳으로 떠나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들고요.”

팀장의 말에 다섯 사원의 얼굴이 더욱 환해졌다. 미션을 완료한 기념으로 머그잔을 하나씩 나누어 가지고 기념촬영을 했다. 포즈를 잡는 것부터 환하게 미소 짓는 것까지 거침없이

똑딱 해내는 이들. 얼굴에는 쑥스러움이 살짝살짝 비치기도 했지만 자신감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놓고 담소를 나누는 사이 마지막 사원이 대표로 세아가족에게 연하장을 쓰기로 했다.

“2014년에는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는 행복한 한 해 되세요.”

크리스마스트리 옆에서 환하게 웃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희망찬 내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2014년을 새롭게 써나갈 STS 내수팀의 더 멋진 도약. 이제부터 시작이다.

것을 만들어낼 거라는 부푼 기대도 내재되어 있다.

팀 전체 평균 나이 30세. 전사 통틀어 가장 젊은 조직인 STS 내수팀은 패기와 열정이 트레이드 마크이다. 팀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원으로만 이루어진 팀. 때문에 다른 팀보다 경험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더 뚝뚝 뭉쳐 일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저희 팀은 의욕적이고 에너지 넘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팀장님께서 잘 이끌어주신 덕분이죠. 항상 우리 팀이 최고라고 해주시니까요. 저희를 믿어주시는 팀장님의 힘이 컸습니다.”

STS 내수팀은 올해 성과에서도 만족할 만한 결실을 얻었다. 1월부터 11월까지 판매매출 목표달성을 모두 이루었기 때문이다. ‘팀 연간 판매목표량 신기록 달성’은 STS 내수팀이 걸어온 올 한 해를 말해준다. 그래서 2013년은 모두에게 의미 있다. 이재원 사원이 일하며 얻은 보람을 덧붙였다.

“매월 판매량 달성을 위해 모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 노력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서 보람을 느낍니다.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일하는 기쁨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대화하는 분위기 속에 다른 사람의 생각은 존중하며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내세울 줄 아는 STS 내수팀. 류양석 팀장은 소통의 힘이 비결이라고 말한다.

“팀 내 정신적 지주 정정현 사원, 군기반장 역할을 한 장순울 사원, 든든한 지원병 이재원 사원, 살림꾼 마지막 사원, 분위기 메이커 노경순 사원 등 누구 하나 빠짐없이 소통을 잘해준 덕분입니다. 이들의 힘이 컸습니다.”

2014년이 기대되는 최강팀을 위하여

드디어 크리스마스트리가 완성되자 모두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떠올랐다. 트리에 매달린 여러 가지 색깔의 소품 덕분에 연말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고

2014년, 우리가 반드시 해낸다!

세아제강 STS 내수팀의 새해 목표

01 류양석 팀장

올해는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보낸 한 해였다면 내년에는 걱정 없이 판매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하는 팀, 누구나 일하고 싶은 멋진 팀을 만들고 싶습니다.

02 정정현 사원

‘목표미달’이란 단어는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양과 이익’을 동시에 달성하는 2014년을 만들고 싶습니다.

03 장순울 사원

스테인리스 내수시장을 점령하는 멋진 한 해를 만들고 싶습니다.

04 이재원 사원

내수 점유율 1등 유지, 영업 이익률 상승, 플랜트 프로젝트 수주를 상승. STS 내수팀이 이루어나겠습니다.

05 마지막 사원

어느 건설 현장이든 우리 회사가 만든 스테인리스 파이프가 있는 것. 우리 팀이라면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06 노경순 사원

임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잘 모르지만, STS 내수팀이 최강 팀으로 우뚝 서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13년 하반기 그룹공채 채용설명회

숨은 인재, ____준비된 세아인을 찾다

2013년 하반기 그룹공채 채용설명회 및 상담회가 11월 4일부터 전국 13개 주요 대학에서 열렸다. 설명회는 인사 담당자가 전하는 회사 소개 및 전형 과정, 선배와의 대화, Q&A 등이 진행돼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얻었다.



세아의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를 찾다

2013년 하반기 그룹공채 채용설명회 및 상담회가 11월 4일부터 15일까지 한양대, 전북대, KAIST, 경북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 전국 13개 주요대학에서 진행됐다.

채용설명회는 창립 반세기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세아의 위상과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문화가 담긴 영상과 함께 시작됐다. 이어 회사 소개, 채용 전형 과정, 선배와의 대화, Q&A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채용 과정 및 세아의 인재상(합리적이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사람, 적응력과 융화력을 갖춘 사람) 등을 꼼꼼하게 메모하며 경청했다. 또한 기업 문화, 직무 등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하는 등 세아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2013년 하반기 그룹공채는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서류전형을 진행한 후 인적성검사, 1차 면접, 2차 면접, 신체검사를 거치게 된다. 1차 면접은 지원자가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기반으



2013 ____CAMPUS ____RECRUITING ____



로 해당 직무에 적합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2차 면접은 기술면접(PT 및 토론면접)과 인성면접으로 나뉘어 지원자의 문제해결능력을 판단하고, 세아가 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최종합격자는 2014년 1월 2일 첫 출근을 하게 되며, 1월 중 신입사원 기본과정에 참여한다. 세아는 향후에도 캠퍼스 채용설명회와 상담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우수한 실력을 갖춘 인재를 확보, 핵심역량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지속가능경영의 활로를 열기 위한 세아의 혁신활동은 2013년 하반기 CBS 도입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 7월 CBS 이해 제고 및 실행준비를 위한 워크숍이 진행된 데 이어, 11월 그 일환으로 장기적 성장을 구축한 '볼보 코리아' 창원공장을 찾아 실질적인 적용 사례를 견학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혁신과 끈기가 '창조적 성공'을 이끄는 현장에서 세아가 꿈꾸는 내일의 청사진을 그려본다.

볼보코리아 벤치마킹 워크숍

혁신의 현장,

첫 번째 혁신 포인트 '끈기의 과정'

생각에 머물러 있던 계획이 실행단계에 접어드는 순간, 꿈은 현실을 향해 달음박질을 시작한다. 급변하는 시장요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품질·시간·비용 및 성장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CBS를 도입한 세아는 본격적인 혁신활동에 접어들었다. 2013 하반기 교육을 시작으로 2014년 세아특수강, 한국번디, 해덱스틸(현 세아 L&S)의 실행단계를 거쳐 2015년에는 전 계열사에 CBS 전파 및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혁신활동은 경제적으로 즉시 효과를 볼 수는 없으나 끈기를 갖고 지속적으로 개선활동을 유지하다보면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는 동시에 그 과정 자체가 현장은 물론 기업 의 문화 전반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마련이다.

시스템 혁신을 통해 안정적 성공을 구축한 볼보코리아 또한 20여 년간 고군분투하는 과정을 거치며 고유의 기업문화를 탄생시켰다. 효율성을 목표로 생산 시스템의 혁신을 이끄는 속에서 노조와의 분쟁, 인사이동, 협력사와의 조율 등 다양한 문제에 봉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볼보코리아는 꾸준히 개선 활동을 이어갔다. 그 결과 조직의 본질적인 DNA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 볼보코리아가 보여준 첫 번째 성공 포인트인 '끈기'는 CBS를 기반으로 장기 레이스를 펼쳐갈 세아그룹에게 거시적 안목과 혁신에 대한 신뢰의 필요성을 전하고 있다.

세아의 내일을 창조하다!



Mini Interview

미래전략파트 김윤성 대리

워크숍은 어떤 형태로 진행되었는지요.

세아특수강, 한국번디, 세아 ESAB, 세아 L&S 실무진들이 직접 참여하여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혁신 담당자가 동석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현장 실습을 통해 부품 조립업을 영위하는 볼보가 어떻게 Lean을 적용했는지 살펴보고, Q&A 시간을 가지며 소재가공업 위주인 세아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짚도록 구성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얻은 점과 향후 추진 방향?

우선, 책으로만 보던 혁신활동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Q&A 시간이 예정보다 2시간이나 초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준 볼보 혁신담당자의 모습에 감명을 받았고, 볼보의 이미지도 좋아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리 역시 한 명 한 명이 세아의 얼굴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년에도 다른 우수기업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두 번째 혁신 포인트 '가능성에 대한 확신'

실체가 있다는 것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되어줄 수 있다. 1980년대 2,000대를 생산하던 볼보코리아가 현재 18,000대를 생산하고 있는 모습은 세아로서 CBS에 대한 긍정적 가능성을 한 번 더 환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볼보코리아 역시 린 제조방식을 처음 적용했을 때 예상치 못한 문제들에 부딪혔다. 물론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사이 볼보코리아만의 해결책을 찾는 과정도 동시에 진행됐다. 가령, 공정별 사이클 타임이 달라 설비 가동률이 떨어져 직접적으로 설비 및 인력 동원에 대한 혁신이 필요했고, 작업자가 전 공정을 이해해야 하는 부분에서 생겨난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유관 부서의 작업 지원을 늘리기도 했다. 또한, 설비 레이아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공용차구를 만드는데만 10년의 시간이 걸렸다. 이러한 시스템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대처방안을 현장에서 직접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세아가 CBS를 운용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들을 적용해볼 수 있었다. 이론으로만 접했던 시스템이 실제로 적용되어 성공적으로 운용되는 모습은 워크숍에 참여한 세아인들에게 강한 동기부여로 작용했을 것이다. 2014년, 세아는 지속 성장과 새로운 기업문화 창출을 위해 검증된 경영 툴인 CBS를 열어가고 있다. 일부 인원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 시스템을 익히는 것만큼 조직 내 긴밀하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CBS가 정착되는 한 해가 펼쳐지길 희망해 본다.



엘리버드가 하나 둘, 세아타워 4층 교육장으로 날아든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11월, 대다수는 작심삼일로 끝나버린 계획들에 한숨을 내쉴 때, 10명의 심기일전 멤버들은 다시금 세계무대를 향해 날갯짓을 펴덕여본다. 글로벌 역량 향상을 위해 마련된 SGC프로그램 속, 프로페셔널한 세아인들의 풍경을 만나보자.

글로벌 역량 향상을 위한 SGC프로그램

세계무대 위, ————— 소통의 강자로 우뚝 서다!



어디서든 당당한 커뮤니케이터로!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소통'은 곧 경쟁력을 의미한다. 해외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회화 능력을 익힘으로써 비즈니스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시작된 SGC 프로그램은 지난 11월 4일부터 시작해 6개월이란 대장정의 걸음을 내딛었다. 수요일을 제외한 월·화·목·금 주4회로 아침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1시간 가량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다. 출장이나 미팅 등으로 인해 참석률이 저조할 것을 대비하여 아침 시간을 활용한 것.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회가 거듭할수록 학구열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현재 세아베스텔 8명, 한국번디 2명이 60일 정도 수업을 진행한 상태이다. 평소 알고 지내던 동료들과 갑작스레 영어로 대화하려니 약간 어색한 게 아니었지만 지금은 한층 익숙한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레 회화가 진행되고 있다.

SGC(SeAH Global Communication)

세아베스텔의 경우 해외법인은 없지만 직원들의 글로벌 역량에 큰 관심을 두고 있어 구매팀과 수출팀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번디는 해외법인이 있어 지속적으로 글로벌 인력 양성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터라 수출팀과 경영관리팀에서 수강을 신청했다. 본인의 실력 향상에 대한 의지와 회사의 인력양성 의지가 시너지를 이뤄 선발된 이들이다. 커뮤니케이션 향상도에 대해서는 두 달에 한 번씩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적극적으로 표현하려는 수강생들의 얼굴은 설렘으로 상기되어 있다. 수업 시간 내내 울리던 웃음소리에서 이제 막 시작하는 SGC의 상쾌한 출발이 실려 있다.

실전 스티디는 네버엔딩!

자격증 취득을 위한 형식적인 클래스가 아니다. 교육 내용은 사무실 안과 밖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 상황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핵심적인 표현은 반복적으로 학습을 거친다. 사무실 안에서는 업무지시나 약속잡기, 이메일 작성하기와 같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과 회의·토론·협상을 하거나 사무실 내에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메시지 교환 형태로 짜여 있다. 사무실 밖에서는 formal situation(세아 소개하기, 출장가기, 교통편 이용하기, 문화 익히기)와 informal situation(접대하기, 회식하기) 등에 대해 학습하고 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실전에서 비즈니스에 활용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를 배우더라도 영어권에 따라 강세, 발음, 사용단어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한 달에 한 번씩 다른 영어권의 강사들로 변경하고 있다. 글로벌 역량은 기업의 생존과 지속성장의 조건 중 하나이다. 이것은 세계무대에서 어깨를 견줄 세아의 글로벌 경쟁력이기도 하다. 이번 SGC는 글로벌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며, 향후 그룹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해외사업 관련 인력의 커뮤니케이션 스킬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해갈 예정이다. 다가오는 2014년에는 해외에 파견되어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들을 위한 가이드북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Mini Interview

세아홀딩스 인재개발파트 신주영 사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느낀 점이 있다면?

세아인들이 개인적으로도 회사의 구성원으로서도 글로벌 역량 향상에 관심이 많으며, 실제 교육에 참여하는 태도 또한 적극적이었습니다. 이번 SGC 교육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앞으로 더욱 확대된 글로벌 역량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SGC 프로그램의 계획 및 목표가 있다면?

해외로 파견된 주재원들이 현지 생활 및 업무에 한층 더 수월하고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수집/정리하여 세아만의 주재원 가이드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2014년을 앞두고 세아인들에게 바라는 점

세아의 글로벌 역량을 더욱 향상시키고 그 기반은 단단하게 다지기 위해 임직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세아만의 경쟁력을 갖추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Merry Christmas,

한층 단단해진 실력으로
중무장한 '궁극의 행복'

SeAH

세아 ESAB 품질개선팀 임희대 팀장

연구소에서만 12년을 보낸 임희대 팀장에게 2013년은 품질개선팀이란 새로운 도전 과제가 주어진 해였다. 그가 한 해의 끝자락에서 환한 웃음으로 세아인들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안으로 밖으로 더욱 단단해진 스스로와의 감동적인 조우 때문이다. 연구의 단계를 넘어 현장에서 들려오는 고객의 생생한 피드백으로 한층 입체적인 '품질' 개선에 뛰어들 수 있었던 임 팀장은 세아인들에게 전하겠다며 긍정 에너지를 장전해왔다. 그의 너털웃음이 일 년 동안 기다려온 반가운 산타와 꼭 닮아있다.



'십년의 법칙'에 터닝포인트를 더하다!

눈발이 꽤나 세차게 날렸지만 임희대 팀장의 부지런함을 막을 수는 없었던 모양이다. 한 시간 가량 일찍 촬영장에 도착해서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오늘 진행될 포인트를 짚어보는 그. 품질개선팀의 수장다운 면모다. 낯설 수 있는 공간에서도 그만의 유머와 자신만만한 태도가 빛을 발할 수 있었던 데는 자존감, 즉 자신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 촬영장에서 간파된 그의 모습은 고스란히 업무에도 스며들어 있을 터. 12년 간 연구소에 몸담고 있던 임희대 팀장에게 품질개선팀은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였다. 연구자의 입장에서 '품질문제'를 풀어냈던 기존의 사고방식에,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가 변화의 환기를 불어넣었다.

“한 분야에서 실력을 쌓고, 무리 안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의 시간 동안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합니다. 동일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누군가는 십년의 법칙을 충실히 이행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겠지요. 그 시간이 지났을 때 각자의 실력은 분명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성공의 추진력이 되는 실력은 곧, 삶의 엔진인 셈이니까요. 품질개선팀에서의 1년은 앞으로 세아인으로서는 걸어갈 길에 결정적인 터닝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제 십년의 법칙에 화룡점정(畫龍點睛)과도 같은 한 해였죠.”

내적으로는 회사의 고질적인 품질개선을 위해 CFT를 구성하고, 추진·총괄하는 것은 물론 외적으로는 대고객지원을 위한 통합적 고객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바로 '품질개선팀'이다. 온라인으로 고객 기술 문의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오프라인에서 고객 기술 지원 및 교육, 현장 점검 서비스 등 고객의 소리를 EGS상에 관리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실제 고객의 니즈를 현장에서 직접 파악하며 품질문제를 이해하고 숙지하는 것은 물론 산업 트렌드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품질개선팀에서의 경험은, 다시금 연구소로 자리를 옮기게 될 임희대 팀장이 품질을 개발하는 데 있어 좋은 양분이 되어줄 것이다.

끊임없이 '나'를 조각(彫琢)하는 시간

다양한 산업 분야를 간접적으로 경험해볼 수 있는 품질개선팀의 매력이 때론 스스로를 계속해서 독려해 나갈 동기부여가 되기도 한다. 영업 파트 또한 분야의 경계 없이 업무를 한다는 점이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지만, 품질개선팀의 경우 주요업무인 대고객지원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선 기술적으로



좀 더 깊이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수많은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각종의 고객들을 응대하기 위해서 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필수이기 때문이다. 고객에 따라 소통하는 용어와 접근 방법이 달라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예측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빠른 응답을 요구하는 것이 고객의 속성인지라, 지식을 기반으로 적재적소에 판단력과 순발력도 함께 수반돼야 한다.

“품질개선팀에서 실력은 곧 업무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다양한 불만과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실력은 최고의 대응법인 셈입니다. 또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분야의 전문가만이 근본적인

원인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팀에게 ‘실력’은 더욱 특별하고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실력발휘를 위해 힘쓴 품질개선팀은 올해 경쟁사의 제품을 사용 중인 업체를 방문하여 용접교육을 실행한 결과, 세아 ESAB의 기술력에 대한 인지도를 더욱 높여 총 세 곳의 업체를 새로운 고객으로 영입했다.

또한 고객점검서비스를 통해 현재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용접장비와 설비들을 점검한 후, 문제점을 발견하여 개선사항을 전달함으로써 고객의 품질 상승에도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창원의 한 업체는 품질개선팀이 진행한 고객점검서비스로 납

품업체에서 우수개선사례로 선정되어 간접적으로 세아 ESAB의 이미지와 매출향상에 일조하기도 했다.

임희대 팀장 역시 예측불허한 고객과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상황을 대처해내기 위해 항상 최신 시장 정보와 기술에 귀를 기울이고, 필요하거나 궁금한 부분이 발생하면 반드시 찾아 확인 후, 업무에 반영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세미나에 참석해 국내·외 산업의 현주소를 파악하는 등 거시적인 안목을 기르는 일에도 힘썼다.

이 모든 시간이 그에게 실력을 쌓는 과정임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부족한 것을 찾아 끊임없이 자기반성을 이어오면 본인의 강점을 파악하게 되고, 이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융합할 때 비로소 자신만의 컬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부족한 단점을 보완하는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는 방향성을 갖고 실력을 키워가야 합니다.

든든한 실력가들과 함께 일군 결실!

아무리 뛰어난 항해사가 있다 해도 신뢰할 수 있는 선원이 없다면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거나 난파되기 십상이다. 갑판에 오른 임희대 팀장은 업무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한 후, 함께 항해를 이끌 팀원들과의 소통에 주력했다. 대고객지원을 위해 일주일에 절반은 외근인 부서지만 짬을 내서 팀원들과의 티타임을 거르지 않는다는 임 팀장.

“외근이 없는 날에는 차 한 잔 마시면서 각자의 근황과 업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일방적인 보고 형태가 아니라 자유롭게 대화하며 현장에서 느꼈던 애로사항이나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주고받습니다. 하루 일정도 공유하고요. 잦은 소통이 서로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지름길이니깐요.”

팀의 분위기 메이커인 강봉규 대리는 자발적인 업무 태도에 아이디어까지 더해져 업무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박채원 사원은 통계 분야의 최고 실력자로 데이터 분석과 대고객지원의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다. 자신의 자리에서 200%의 역량을 발휘하는 팀원들이 있어 임희대 팀장의 항해는 거침이 없고 진취적일 수 있었다.

“저희 팀이 직접적인 판매를 통해 매출을 증가시키거나 획기적인 개선으로 특허를 취득하진 못하지만 묵묵히 대고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고객과 영업 파트가 가려워하는 부분을 찾아 개선해 세아 ESAB의 이미지 상승과 매출 증대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었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두 팀원이 있어서 이뤄낼 수 있었던 값진 결실인 것 같아요.”

2013년의 매듭을 지으며 불연 듯 13여 년 전, 입사시절을 떠올려보는 임희대 팀장. 세아 ESAB의 공고를 보고 느꼈던 튼튼하고 믿음직스러운 기업이란 첫인상을 다시금 곱씹으며, 새롭게 세아인으로 거듭날 누군가에게도 좋은 회사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그는 ‘십년의 법칙’, 그 이상에 도전하기로 마음 먹어본다. 유쾌한 웃음을 가득 전한 임희대 팀장은 2014년은 창조적 인재로 거듭나 더욱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도약의 한 해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가족과 시간을 나누고 건강을 챙기는 것 또한 또 다른 의미의 실력이란 생각으로 철저히 행복 사수에 나설 작정이다.



추운 겨울 바람이 더 매섭게만 느껴지는 곳을 찾아 서른 명 남짓한 세아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다. 지난 12월 20일 광흥창역에 집결한 회색 물결은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할 생각에 벌써부터 들뜬 눈치다. 올해로 두 번째 연탄배달 봉사를 준비한 세아. 영하의 기온도 잊을 만큼 훈훈했던 그 현장을 따라가보자.



한 장의 연탄마다
사랑의 온기를 전합니다!

세아그룹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

Full of
Warmheartedness



손에서 손으로 마음을 배달하다

오후 두 시, 광흥창역은 연탄 배달 활동에 참여한 봉사자들로 시끌벅적하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안면을 익힌 후 연탄나눔 운동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이어졌다. 본격적인 봉사활동을 알리는 체조로 몸을 풀고, 장갑과 앞치마까지 완벽히 준비를 마쳤다. 3시간 동안 총 5가구에 연탄 및 식료품 배달을 완료해야 하는 미션을 품고 마포구 창진동으로 향했다. 준비한 아파트 사이에 낮은 집들이 눈에 들어온다. 골목길이 좁아, 길게 줄을 지어 한 명 한 명의 손을 거쳐야 배달이 가능하다.

다음 집으로 이어지는 길도 도보로만 가능한 골목이라 힘이 부치기도 했지만 어르신들이 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다시금 힘을 내보는 세아인들. 성인 키를 훌쩍 넘기는 연탄 더미를 보며 언제 다 나눌 수 있을까 반신반의 했지만 서로를 격려하고 봉사의 의미를 되새기며 차분히 진행됐다. 누군가는 버려진 카트를 가지고 와서는 연탄 12장을 옮기는 재치도 발휘하고, 버거워하는 동료의 연탄은 함께 들기도 하며 다양한 풍경을 연출했다. 어느덧 이마에 송골송골 땀이 맺히기 시작하고 저마다의 얼굴에는 연탄의 흔적이 훈장처럼 남았다.

한 가구당 연탄 300장과 쌀 20kg 2포대, 라면 4박스를 전하는 동안 어르신들은 버선발로 나와 세아인들에게 진심을 다해 고마움을 표현했다. 세 시간 정도 흘렀을까. 그 많던 연탄과 물품들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세아홀딩스, 세아제강, 세아베스틸, 세아특수강, 세아메탈, 세아 L&S, 세아 ESAB, 세아 M&S, 한국번디, 세아네트웍스 등 다양한 계열사의 세아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동절기 한파를 따뜻한 온정으로, 연탄으로 전한 날이었다.

Mini Interview



세아베스틸 기획팀 윤나건 사원

대학교 때 봉사동아리에 소속되어 있었어요. 재학시절에 성수동 공부방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곤 했는데 취업 후에는 봉사를 못하게 되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꼭 해보고 싶단 생각이 들던 터에 연탄봉사활동에 대한 공지를 받고 지원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출기도 하고 쌓여있는 연탄을 언제 다 나눌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세아인들과 함께

정을 나누다 보니 금방 끝났어요. 작은 힘이 모여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기에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나는 만큼 수혜자분들도 힘 내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세아홀딩스 해암학술장학재단 박요하나 사원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찾아볼 여유가 없어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렇게 세아인들과 함께 연탄봉사를 함께 할 수 있어 참 행복했습니다. 힘든 것도 없잖아 있었지만 정말 뿌듯하고 보람된 경험이었습니

다. 올 겨울 많이 춥다고 하지만 이웃과 함께 하는 저희들의 작은 도움이 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동참해서 조금 더 도움을 나눌 수 있는 세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아제강
2013년 사랑의 연탄 배달 행사 시행



세아제강 포항공장이 11월 13일부터 14일, 20일, 총 3일에 걸쳐 '사랑의 연탄 배달 행사'를 가졌다. 포항공장은 포항시 자원봉사센터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독거노인 거주 가구를 포함한 포항 지역의 40가구에 총 12,000장의 연탄을 배달했다. 이는 행사가 처음 시작된 2007년에 비해 3배가 늘어난 수치이다. 한편, 이번 행사를 위해 포항공장은 사내에서 재배한 모과를 수확해 판매한 '사랑의 모과판매' 수익금과 직원들의 기부금으로 연탄을 구입했다.

철강산업대전 참가



세아제강 포항공장이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개최한 철강산업대전에 참가했다. 해도공원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세아제강을 비롯한 포항 소재의 철강기업이 대거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산업대전에서는 홍보부스를 통해 이루어진 기업 홍보와 노사민정 한마음 대축제가 함께 열려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세아제강 포항공장의 홍보부스에는 박승호 포항시장

을 비롯한 각계 인사와 시민들이 찾아와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풋살왕 선발대회 개최



11월 27일 세아제강 포항공장에서 사내 FUN 이벤트의 일환으로 풋살왕 선발대회가 개최됐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사우들의 열띤 응원과 열정적인 플레이로 뜨거운 열기가 고조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전문직뿐만 아니라 사무직 사원까지 대거 참가하여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한편, 최종 결승전에서는 설비보전팀과 JCOE공장이 치열한 접전을 펼친 끝에, JCOE공장이 3:1로 우승을 차지했다.

혁신 소그룹 자랑대회



세아제강 순천공장이 11월 27일 오전 9시부터 약 3시간 동안 5층 회의실에서 2013년 혁신 소그룹 자랑대회를 개최했다. 협력사 직원을 포함한 전 사원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한 이번 행사에서는 12개 소그룹 전원이 한 해 동안 실시한 혁신활동에 대한 성과와 결과를 발표했다. 순천공장은 향후에도 이 같은 소그룹 활동을 지속적으

로 전개하여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11월 28일 세아제강 포항공장 명품소그룹이 제 39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대통령상 동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한국전력 본사 한빛홀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는 전국적인 규모의 대회로, 국무총리를 비롯한 1,600여 명의 수상자 및 관계자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세아제강 포항공장은 앞으로도 더 좋은 성과창출과 목표달성을 위해 이와 같은 노력을 꾸준히 지속할 방침이다.

세아베스틸

2013 하반기 해외산업시찰 실시



세아베스틸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3박 4일 동안 해외산업시찰을 실시했다. 해외산업시찰은 철강기업 견학을 통해 직원들의 견문을 넓히고자 세아베스틸에서 매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진행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에는 12명의 기능직 모범사원들이 중국의 상행특수강, 보산철강을 방

문하여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최근 몇 년간 변화가 극심한 국제경영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것을 다짐했다.

불우이웃 돕기 성금 전달



11월 22일 세아베스틸이 군산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연말 이웃 돕기 성금 5,000만원을 기탁했다. 조기찬 지원본부장과 김태완 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군산시청을 방문해 문동신 시장에게 기탁증서를 전달했다. 한편, 세아베스틸 임직원들의 '희망나눔후원성금'과 회사 기부금으로 마련한 이웃 돕기 성금은 군산지역 이웃들의 겨울나기와 긴급의료비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사랑의 김장 담그기' 체험봉사



세아베스틸이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사랑의 김장 담그기' 체험봉사를 실시했다. 군산 여성자원봉사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를 위해 세아베스틸 대형압연팀 등 직원 60여 명은 배추 수확과 손질부터 김장 버무리기와 포장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나눔의 정을 실천했다. 이날 담근 김치는 군산지역에서 도움이 절실한 저소득층, 소외

계층, 장애인 등 500세대에 10kg씩 임직원들의 희망나눔성금으로 마련된 이불매트와 함께 전달되어 현장을 훈훈케 했다.

세아특수강

천진경제기술개발구(TEDA) 한국방문단 세아타워 방문



천진경제기술개발구 한국방문단이 12월 6일 세아타워 소재 세아특수강 사무실을 방문했다. 동방문단은 지난 11월 21일에 착공식을 가졌던 포스세아선재(천진)유한공사의 한국 본사인 세아특수강을 방문하여 유을봉 대표, 한진기 상무, 전주병 이사와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위홍심 주임 등이 포함된 7명의 방문단은 세아특수강이 천진경제기술개발구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환영과 감사의 뜻을 전하며, 포스세아선재 천진공장이 계획된 일정대로 완공되어 중국 화북지역의 자동차부품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아 ESAB

글로벌 판매 확대 워크샵 개최

세아 ESAB이 12월 4일부터 5일, 이를 동안 파트너사인 ESAB의 판매사원을 대상으로 싱가포르에서 글로벌 판매 확대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샵은 세아 ESAB이 최근에 개발하여 국내 대형조선소(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에 성공



적으로 판매한 조선, 해양프로젝트 제작용 FCW 제품을 동남아시아 시장에 홍보하고 고부가 가치 제품의 판매를 신장하기 위해 기획됐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세아 ESAB 유덕상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총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품특징 및 적용분야 소개, 용접시연, 제품체험 등 총 3개의 세션을 진행했다.

2013년 하반기 Major Kaizen 개선활동 발표대회 실시



세아 ESAB이 11월 26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2013년 하반기 Major Kaizen 개선활동 발표대회를 실시했다. 임원진을 포함하여 약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이번 행사에서는 2013년 하반기에 실시한 개선활동 성과를 주제로 각 팀이 발표를 진행했으며, 향후 우수한 성과를 거둔 팀에 대한 시상식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연탄배달 봉사활동

세아 ESAB의 봉사모임 '세아드림'이 11월 23일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연탄 기증과 배달 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활동 참가자들은 매



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직접 구입한 연탄 5,000장을 창원시 마산 합포구 중앙동 인근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그 동안 세아 ESAB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앞으로도 불우이웃돕기, 목욕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덕상 대표이사 '2013 정부포상' 산업포상 영예



세아 ESAB 유덕상 대표이사가 '2013년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노사 상생협력 부문 유공자로 산업포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12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시상식으로,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한 모범 기업과 유공자, 노사정 일자리 협약 체결 및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자치 단체와 유공자들을 포상하고자 마련됐다.

세아 L&S

2013년 우수 화물운송업체(AA) 선정



세아 L&S가 12월 3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제5회 우수화물운송사업자 인증에서 AA등급을 받으며 선전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업체의 운송서비스 품질, 안전관리 체계, 내부 직원 만족도 등 12개 항목을 종합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세아 L&S는 이미 지난 2011년 12월 AA인증을 수상한 바 있다. 우수화물운송사업자 인증제도는 화물운수업의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물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AA등급은 1,000점 만점 중 800점 이상을 얻어야 한다.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며, 2년 후 유지심사를 받아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세아홀딩스

출산

도기현 자원개발파트

세아제강

입사

노경순 본사 STS내수팀
이지현 군산판재 생산2팀

결혼

박건욱 본사 아연도강판영업팀
김상아 본사 대리점팀
이호철 본사 생산계획팀
송이보담 본사 인사운영팀
이민희 본사 자금팀
김준영 본사 회계팀
정재권 본사 판매기획팀
윤광식 군산판재 생산2팀
김지호 창원 생산팀

출산

김세명 본사 수출2팀
김창현 포항 생산1팀
허윤철 순천 생산팀
김정제 순천 품질경영팀
박성만 군산판재 설비팀
조휘영 군산판재 생산2팀
오성남 군산판재 생산2팀

조의

우경직 포항 생산2팀(부친)
신재구 포항 생산3팀(장인)
김기수 포항 생산2팀(장인)
김선우 창원 생산팀(부친)
우연정 부산 부산대리점팀(부친)

세아베스틸

결혼

윤성진 연주팀
김세진 재무팀
강승학 압연설비팀
박동성 가공기술팀
김신국 창)소형압연팀

조의

고명철 압연설비팀(부친)
김동연 압연설비팀(부친)
전재욱 제강팀(모친)
국중문 특)생산관리팀(모친)
국중남 소형압연팀(모친)
국중만 에너지관리팀(모친)
이지용 단조사업본부(모친)
이종건 제강팀(모친)
손병극 압연설비팀(장인)
서한길 단조설비팀(장인)
황희영 연주팀(장모)

세아특수강

결혼

남기태 충주 생산팀
변준혁 충주 생산팀
정영훈 포항 생산팀
배재엽 포항 설비팀
윤성원 포항 생산팀

출산

김진호 충주 설비팀
허 서 포항 생산팀
권기범 충주 생산팀
최진영 포항 생산팀

조의

진강원 포항 생산팀(모친)

한국번디

결혼

이주용 서울 영업1팀
조윤환 평택 생산팀

출산

박준우 서울 경영관리팀
김동준 광주 생산팀

조의

김형식 평택 생산팀(부친)
손상영 평택 생산팀(배우자조모)

세아 ESAB

조의

박진희 설비관리팀(조모)
박채원 품질개선팀(조모)
김도영 품질경영팀(조모)

세아메탈

입사

이송하 원주 생산설비팀
김정웅 원주 생산설비팀

결혼

원일섭 원주 생산설비팀

출산

이진규 원주 품질경영팀

조의

박명수 원주 공장장(부친)

세아엔지니어링

입사

전창희 경영지원팀

결혼

김동섭 기술영업1팀

세아 M&S

입사

최형빈 생산팀
최정식 생산팀

세아 L&S

조의

차진국 부산영업팀(장인)



Quiz

Trivia Quiz

세아가족 11+12월 호 퀴즈를 맞춰라!

독자 여러분, 세아가족 11+12월 호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그렇다면 다음 퀴즈에 한번 도전해보세요.

정답을 적어서 엽서를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퀴즈의 정답을 맞히시는 분들께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지난 호 퀴즈 정답자

이찬우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 덕소

강미화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김승희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이석호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조성현 부산시 사하구 을숙도대로

조연정 대전시 서구 정부청사서로

전기영 전북 군산시 소룡동

오기쁨 서울시 성북구 장위로

세아가족 11+12월 호 퀴즈

문제 1) 세아인들의 글로벌 역량 향상을 위해 해외 현지에서 비즈니스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구성된 영어회화 프로그램의 이름은?

① SGC

② SCG

③ CBS

④ CCD

문제 2) 사회 일반의 공익에 기여하고 국가와 민족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해 1992년 설립된 장학재단의 이름은 무엇인가?

① 해암장학재단

② 이종덕설립장학재단

③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④ 세아학술장학재단



Epilogue

Hello SeAH Family

사보참여 안내

〈세아가족〉사보에서는 다양하고 많은 세아인들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한 행사나 사연이 있는 사우, 직접 참여를 원하시는 분도 망설이지 말고 신청해주세요.

문의 : chris.ahn@seah.co.kr

02-6970-0093



Message

〈세아가족〉독자의견

이찬우 두 달에 한 번 전 계열사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는 〈세아가족〉을 기다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세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족 같고 친구 같이 느껴집니다.

조성현 이번호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비치하여 열정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과 탐구심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사용하려 합니다. 제 마음에 항상 친정 같은 회사, 세아이기에 너무도 자랑스럽습니다.

조연정 〈세아가족〉을 읽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세아인들의 노고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알차고 충실한 내용,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세아가족〉사보기자

전태원 세아제강 인사운영팀(본사)

이찬호 세아제강 업무지원팀(포항)

이인호 세아제강 업무지원팀(창원특수관공장)

김재현 세아제강 업무지원팀(군산판재공장)

이경근 세아제강 업무지원팀(군산강관공장)

장호영 세아제강 업무지원팀(순천)

이정화 세아베스틸 기획팀(본사)

김동기 세아특수강 기획인사파트(서울)

이형호 세아특수강 업무지원팀(본사)

이상은 세아특수강 업무지원팀(충주)

박수연 한국번디 경영관리팀(평택)

이송이 한국번디 품질경영팀(광주)

진승래 세아 ESAB 경영지원팀

강미화 세아메탈 부산영업팀

이상기 세아 E&T 경영지원팀

김민구 세아 M&S 서울사무소

이건호 세아엔지니어링 경영지원팀

김미희 세아 L&S 재경기획팀

김승렬 드림라인 사업기획팀

SECRET NOTE

스스로 단단하게 만드는 길, ‘실력’을 걷어간다!

안녕하세요? 오승민 변호사입니다. 실력을 쌓는 나만의 노하우에 대해 질문을 받았는데요, 아직 입사한지 6~7개월 밖에 되지 않아 회사 생활에서 보다는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나 로펌에서 업무를 하며 ‘실력’을 쌓기 위해 노력했던 마인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세아홀딩스 법무파트 오승민 변호사

STEP 1 첫째도, 둘째도 집중!

일반적으로 사법시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시험 직전까지 한 과목을 ‘수화독*’(보통 7회독)을 합니다. 최고조에 이르러서는 시험 전날에 1회독을 하고, 시험 당일 아침에 또 1회독을 할 정도입니다. 업무에 있어서도 최대한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 기간에 최대한 자신의 역량을 집중해서 쏟아 붓기 위해서는 평소에도 꾸준히 실력을 키워놓는 것이 중요하겠죠?

*회독: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보는 것

STEP 2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변호사 업무를 할 때 어떤 사건의 경우, 타임라인이 촉박하고 난이도가 높아 도대체 어디서부터 접근해서 어떤 방향으로 해결을 해 가야 하나 전혀 감이 잡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밤새 판례 및 논문 등을 찾고 또 찾은 후 결국 해결책을 얻으면 스스로가 대견하게 느껴집니다. 프로페셔널이라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좋은 성과를 내야 하는 것이죠.

STEP 3 스트레스 내성을 기른다!

시험 준비를 하거나, 업무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는 업무효율에 부정적인 영향 미치기 때문에 잘 조절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음악 감상, 노래 부르기, 운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푸는데, 가장 좋아하는 것은 노래 부르기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은 만한 상황이 오면, 저는 제 자신을 가끔 속이곤 합니다.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금방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하며 말이지요.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는 발 붙일 틈이 없습니다.